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베트남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22년 4월 22일 | 책임조사역(G3) 박선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331천 km <sup>2</sup> 	<b>인구</b> 9,832만명 (2021 <sup>o</sup> ) 	<b>정치체제</b> 사회주의 공화제 	<b>대외정책</b> 미국, 중국과 균형외교 
<b>GDP</b> 3,662억 달러 (2021 <sup>o</sup> ) 	<b>1인당GDP</b> 3,725달러 (2021 <sup>o</sup> ) 	<b>통화단위</b> Dong 	<b>환율(U\$기준)</b> 23,159.8 (2021 <sup>o</sup> )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도입하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음.
- 베트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자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및 정치적 안정성 등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임. 또한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꼽히며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은 부정부패 척결 및 국유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말 공산당대회에서 서기장으로 재선출되어 정치적 안정과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ASEAN, RCE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2. 22 수교 (북한과는 1950. 1. 30)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 무역협정(1993), 투자보장협정(1993), 항공협정(1993),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과학기술협정(1995), 원자력협정(1997), 사증면제협정(1999), 기술협력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09)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48,177,749	48,510,572	56,728,532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 입	21,071,557	20,578,589	23,965,707	무선통신기기 부품, 의류, 신발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7,813건, 30,760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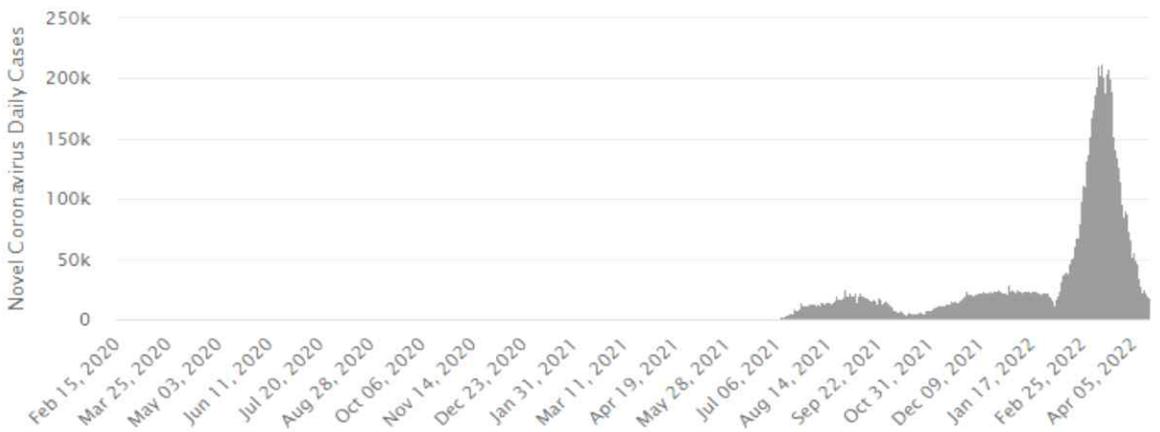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6.9	7.2	7.2	2.9	2.6
소비자물가상승률	3.5	3.5	2.8	3.2	1.9
재정수지/GDP	-2.0	-1.0	-3.3	-3.9	-4.2

자료: IMF

**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10년 만에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 기록 추정**

- 베트남 경제는 낮은 임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적극적인 통상정책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함께 수년 간 7% 내외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해 왔음. 2020년부터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FDI 감소, 관광업 침체, 내수 위축 등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 2020년 2.9%, 2021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20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됨.<sup>1)</sup>
  - 베트남 정부의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6.0~6.5%이며 IMF, ADB, World Bank 등도 5.5~7%대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음.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 FDI 유치 회복,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은 성장률 반등이 전망됨.
- \*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IMF 6.6%, ADB 6.5%, World Bank 5.5%, IHS Markit 6.0%, Fitch 7.0%
- 다만, 베트남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그에 따른 이동제한 등 조치 여부, 대외수요 회복 정도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함.

[그림 1] 베트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현황



자료: worldometers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1.10월)에 의하면, 2020년에는 전 세계 195개국 중 31개국(베트남 포함)만이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이 중 18개국은 대양주의 소규모 3개 도서국 및 경제규모가 작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5개국임을 감안할 때,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봉쇄의 와중에도 2020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됨.

**국내경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품·서비스 가격의 인하로 6년 만의 최저치 기록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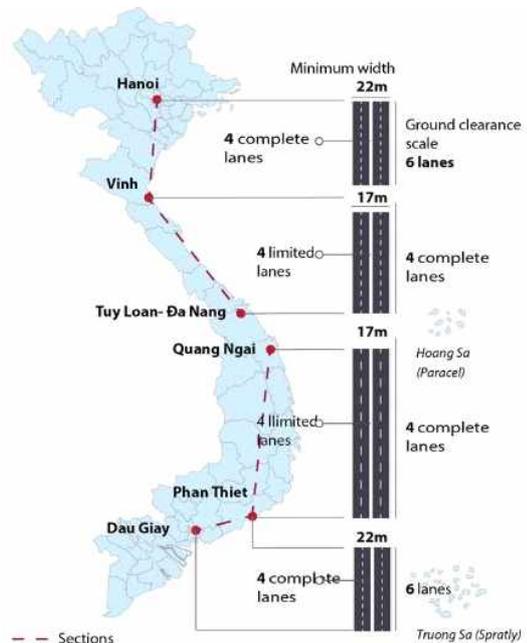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의 해소 및 운송, 통신 등 서비스 가격의 인하로 2016년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소비자물가상승률 바스켓 구성 항목 중 식료품의 비중이 약 40%로, 식료품 가격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2021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이 종식되는 등 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들이 해소됨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보다 안정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와 대응 지출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추정**

- 베트남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 도로와 항만 등 각종 대형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겪어왔음. 이에 더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기업이익 감소,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세입이 감소한 반면 방역 비용,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투자 증대 및 취약계층 소득 보조 등 정부 지출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2%로 전년(-3.9%)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에는 세금 감면, 소득 보조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이 점차 축소되고 내수가 회복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부의 대형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민간소비와 기업실적 회복이 제한되면서 여전히 2019년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예상됨.

- 2019년 착공한 동부 북남고속도로 1단계 사업 (총 11개 고속도로 포함, 전체 사업 대상 도로 1,624km 중 654km 해당), 2021년 착공한 베트남 최대 규모 공항인 롱탄 국제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임.
- 2021년 3월 호치민과 빈프억 인민위원회는 호치민-빈프억 고속도로 건설 계획(2021~25년)을 승인하였으며, 응우옌 쉰언 폭 총리가 남부 바리아-붕따우 지방정부 및 기관에 2030년까지 이 지역의 항만-물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2045년까지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는 등 신규 대형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2] 동부 북남고속도로 전체 사업 계획



자료: 베트남 교통운송부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e</sup>
경 상 수 지	-1,649	5,899	13,101	14,932	5,546
경상수지/GDP	-0.6	1.9	4.0	4.4	1.5
상 품 수 지	10,846	16,540	21,494	30,578	21,410
상 품 수 출	215,119	243,697	264,189	282,592	349,844
상 품 수 입	204,273	227,157	242,695	252,014	328,434
외 환 보 유 액	48,693	55,074	77,955	94,436	108,446
총 외 채	107,991	109,964	122,276	129,295	139,834
총외채잔액/GDP	39.0	36.3	37.3	37.7	38.2
D.S.R.	6.1	7.1	6.1	6.6	5.8

자료: IMF, OECD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및 관광객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대폭 축소 추정

- 2021년 수출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전년 대비 30.3%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30.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62.9%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의 주력 수출품목 중 휴대전화 및 그 부품(17.1%),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품(13.3%)이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하며,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목 중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품(22.7%), 기계 및 장비류(13.9%)가 전체 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2021년 베트남 주요 수출품

순위	품목	총수출액 대비 비중
1	휴대전화 및 그 부품	17.1%
2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품	13.3%
3	기계 및 장비류	9.7%
4	섬유 및 의류제품	8.9%
5	신발류	5.3%

자료: 베트남 관세청

[표 2] 2021년 베트남 주요 수입품

순위	품목	총수입액 대비 비중
1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품	22.7%
2	기계 및 장비류	13.9%
3	섬유 및 의류제품	7.9%
4	휴대전화 및 그 부품	6.5%
5	플라스틱	3.5%

자료: 베트남 관세청

## 외채상환능력

## FDI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누적으로 2021년 말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고치인 1,084억 달러 추정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FDI 유입액은 311억 달러로 2020년 대비 9.2%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9년 FDI 총액 380억 달러 대비 약 82% 수준으로 아직은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와 같은 정상적인 FDI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만, 1990년대부터 누적된 풍부한 FDI 유입과 GDP 대비 2.8%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2021년 말 1,07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D.S.R 5.8%,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38.2% 등 외채상환능력 관련 지표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됨.
- 상품수입 증가로 인하여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8년까지 월평균수입액의 2개월분 내외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큰 폭의 외환보유액 증가에 힘입어 2021년 말 3.5개월분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역시 2021년 말 29.4%로 전년(42.2%)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구조적취약성

### 수출산업 다변화로 산업구조가 대체로 안정적, 주요 산업인 관광업의 회복 전망은 불확실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주요 수출품목의 총수출액 대비 비중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그 부분품 17.4%,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13.3%, 기계 및 장비류 9.7%, 섬유 및 의류제품 8.9% 임. 또한 OECD에서 발표한 베트남의 비제조업 부문 단일산업 수출의존도는 최대 4.0%(관광업)로, 특정 품목 및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낮아 산업구조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비제조업 부문 최대 수출산업으로 2019년 GDP의 9.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약 78.7% 감소하는 등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업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해외 입국자 수는 2019년 대비 98.7% 감소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2022년 3월 15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든 경로를 통한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등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무역의존적 경제구조로 환율 변동에 민감

- 베트남 경제는 무역의존적인 구조로 환율 변동에 민감하며, 정부는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동(Dong)화의 완만한 평가절하를 지지하는 정책을 지속해옴. 다만, 불공정한 경쟁우위라는 대외적인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7월 19일 미 재무부와 베트남 중앙은행은 효율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막거나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환율 조작을 피하고 베트남 동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향후 베트남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한계가 예상되며 환율 하락(평가절상) 가능성이 있음.

### 자연재해와 기후 변동에 취약

- 베트남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태풍이 집중 발생하며, 저지대 삼각주가 넓게 분포한 지리적 특성상 태풍과 그에 따른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함. 농업 부문의 중요도가 높아 이상기후 발생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홍수, 해일, 폭풍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충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정부는 2018년 4월 호치민 내 40~160m 규모의 수문 6곳을 설치하는 홍수 방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중단됨. 2021년 11월 16일 베트남 정부는 2022년 내 홍수 방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성장잠재력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에 따른 FDI 유입 감소

- 베트남은 저임금, 정치적 안정, 다수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주요 시장 앞 수출 용이성 등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 FDI를 꾸준히 유치해 왔으며, FDI 기업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약 72%를 차지하는 등 투자와 수출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방형 경제 구조임.
- 베트남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품수입액 약 294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 중 90% 상당이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일 정도로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활동이 활발함.
- 다만, 2021년 FDI 유치액은 31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389억 달러) 대비 20% 감소하였음.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투자 유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투자 부진과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른 베트남 현지 투자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3] 對베트남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U\$백만,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투자 금액 (증감률)	26,891 (-)	37,101 (37.9)	35,466 (4.4)	38,952 (9.8)	28,530 (-24.9)	31,153 (9.2)
투자 건수 (증감률)	9,832 (-)	9,000 (-8.4)	10,711 (19.0)	16,227 (51.4)	9,804 (-35.0)	6,520 (-33.5)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12.20. 기준

[표 4] 2021년 주요 국가별 對베트남 투자액 변동률

(단위: %)

국가명	'20/'21년 증감률	'19/'21년 증감률
한국	25.4	-40.6
일본	64.6	-6.5
싱가포르	19.1	142.3
대만	-39.2	-33.5
홍콩	16.0	-71.7
버진아일랜드	-36.9	-59.5
중국	18.8	-29.0
태국	-80.4	-59.7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12.20. 기준

[표 5] 베트남 주요 산업 분야의 연도별 외국인투자 비중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조업	46.8	64.7	47.6	58.2
부동산업	18.7	10.1	14.6	8.5
도소매 유통업	10.4	6.8	5.7	4.5
전력·가스업	4.6	2.6	18.0	18.3
호텔·요식업	1.6	1.2	1.1	0.5
건설업	3.3	2.5	1.9	1.5
물류·운송업	1.1	0.9	2.1	2.5
과학기술활동	6.1	4.1	4.7	3.3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12.20. 기준

## 성장잠재력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이후 FDI 유입이 부진하였으나,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중국 위주의 생산기지를 재편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2020년 베트남-EU FTA 발효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이 이뤄지며 베트남 앞 제조업 FDI 유입 확대와 이에 따른 수출 증대가 기대됨. 특히 베트남은 중국과 접경하고 있어 중국 공장을 이전하기에 물리적으로 용이하며, 공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도 비교적 우수하여 유력한 대체지로 평가됨.
- 2020년 6월 퀄컴은 중국 생산라인 대체를 목표로 6월 베트남 하노이에 테스트 센터를 설립하였고, 애플은 2분기부터 무선 이어폰 '에어팟' 생산량의 3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호야그룹 등 중국 내 일본 기업 15개사도 베트남으로 이전을 결정하였음.
- 삼성전자도 중국 내 스마트폰 및 TV 공장을 모두 가동 중단한 데 이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베트남에 연구개발센터를 건설 중임. 2021년 말 기준 삼성전자는 지난 24년간 베트남에 총 18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였으며, 2022년 중 9.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임.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기지를 분산 또는 이전하려는 수요가 베트남으로 상당 부분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투자법을 개정,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안이 발효되었음. 개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사업에 대해 명확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제한 명단 이외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베트남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며, 외국인 자본 접근 제한 산업을 기존의 243개에서 227개로 축소하였음.
- 법안에서는 국방과 보건 관련 산업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반면, IT 및 금융산업 부문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였음.

## 2021년 신흥시장물류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8위 기록

- 2021년 글로벌 물류기업 Agility의 신흥시장물류지수(Emerging Market Logistics Index)<sup>2)</sup>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8위로 평가 대상 50개국 중 8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1년 전 11위보다 3단계 상승한 결과로, ASEAN 지역 내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이어 3위임.

※ 중국(1위), 인도네시아(3위), 말레이시아(5위), 태국(11위), 필리핀(21위), 캄보디아(31위), 미얀마(46위)

## 젊고 풍부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여 제조기지로서 유리

- 베트남의 2021년 인구 추정치는 약 9,817만 명으로 ASEAN 3위, 세계 15위에 해당됨. 생산가능인구인 15~65세가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5~34세까지의 젊은 층은 전체 인구의 약 35%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사회임.
- 주요 제조업 기지였던 중국이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 및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중국에 집중된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 등 주변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2) 국내 물류사업 기회, 해외 물류사업 기회, 물류 사업기반 등 평가

## 정책성과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경기부양책 추진

-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로 민간소비 및 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부채 상환 연기, 금리 인하 혹은 면제, 수수료 축소 등 11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축소, 공공투자 지출 및 집행 가속화, 실직자 재교육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함.
- 베트남 정부는 2022년 3월 16일 기준 전국 18세 이상 성인 인구 백신 접종률은 2차 90% 이상, 3차 60% 이상임을 발표했으며, 4차 접종을 위하여 추가 데이터를 검토중임.
-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 집계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 덕분에 사망자는 70명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됨.

###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추진은 실적 저조

- 베트남 정부는 경영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583개 국영기업(2016년 기준) 중 128개사를 2020년까지 완전 또는 부분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목표시한보다 1년이 경과한 2021년 말까지 39개 기업을 민영화하여 목표 달성률이 30.5%에 불과함.
- 과도한 매각가격 책정, 구조개혁에 대한 거부감, 부패척결 정책에 따른 관료들의 소극적 행정,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기한 내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나, 민영화 정책은 지속 추진 중임.

### 베트남 호치민(Ho Chi Minh)시 도시철도 1호선 완공 및 2호선 공사 예정

- 호치민 시는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벤틀(Ben Thanh) 시장에서 통합 신도시인 수오이띠엔(Suoi Tien) 테마파크까지 19.7km 노선 건설을 위해 2012년 도시철도 1호선 착공에 들어갔으나 주계약자와 하청업체 간의 소송 등으로 인해 수 차례 완공이 연기됨. 최근 호치민 시는 2022년 내로 도시철도 1호선 완공하고 시범 운영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 내 호치민 내 벤틀-탐르영(Ben Thanh-Tham Luong)의 2호선 건설도 시작할 계획임을 발표함.

## 정치안정

### 응우옌 푸 쯙 공산당 서기장의 3연임이 확정되며 정치적 연속성 확보

- 2021년 1월 말 개최된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sup>3)</sup>에서 응우옌 푸 쯙 서기장이 이례적으로 3회 연속으로 서기장에 임명되었음. 서기장은 공산당 권력 서열 1위로,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인 베트남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임.
- 공산당 조례에 따르면 당 서기장은 2번까지만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65세 은퇴 조항이 있으나, 푸 쯙 서기장은 두 항목에서 모두 특례 취급되었음. 이번 연임은 공산당 역사상 최초의 3연임으로, 강력한 정치적 안정과 정책 연속성이 예상되는 동시에 권력 집중이 우려됨.
- 푸 쯙 서기장은 호치민 이후 처음으로 국가주석과 서기장을 겸직하였으며, 2021년 4월 국회에서 응우옌 쉰 푹 전임 총리가 국가주석으로 임명되어 겸직은 해소되었음.

## 사회안정

### 사이버보안법 시행 등 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비난에 강경 대응

- 2017년 형법 개정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계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게시물의 24시간 내 삭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
-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은 '전제주의적 정보 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노동자 파업, 토지 수용 및 반중국 시위 등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 및 토지, 환경, 영토 분쟁 등과 관련한 시위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규모 폭력 시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치안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불공정한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시위가 종종 발생하며, 경찰과 시위대 간 대치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음. 2020년 1월에는 하노이 외곽에서 토지 수용 관련 시위 도중 경찰이 사망하였음.
- 2019년 8월 하노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소규모의 반중국 시위가 수 차례 발생하였음. 2018년에도 베트남 정부가 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장 99년 간 토지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 자본에 특혜를 부여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하노이·호치민 등에서 반중국 시위가 발생하였음. 당시 반대 여론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토지 임대기간은 70년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 중앙정부가 금년 7월부터 최저임금을 6%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은 18~26만 동 (7.8~11.4달러)으로 인상됨.

3)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5년마다 개최됨.

## 사회안정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ESG 요소가 베트남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명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sup>4)</sup> Moody's의 평가대상 개도국 총 107개국 중 4등급에 해당되는 국가는 총 45개국임.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신용영향점수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해안 지역의 홍수 발생 등 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빈도 증가 등의 위험이 있음. 재해 발생 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요구되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젊은 인구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깨끗한 식수의 공급 부족, 영양 결핍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가 미진한 가운데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확대가 위험 요소로 작용함.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정책효율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정책 결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며, 정부 기관의 업무 계획과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2019년에는 정부 채무상환이 지연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베트남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2021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17단계 상승한 87위 기록

-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39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87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1년 전 104위보다 17단계 상승한 결과로, 말레이시아보다는 낮고 태국보다는 높은 순위임.
- ※ ASEAN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말레이시아(48점, 62위), 인도네시아(38점, 96위), 필리핀(33점, 117위), 라오스(30점, 128위), 캄보디아(23점, 157위) 등
- 한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던 응우옌 푸 쯩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베트남의 부정부패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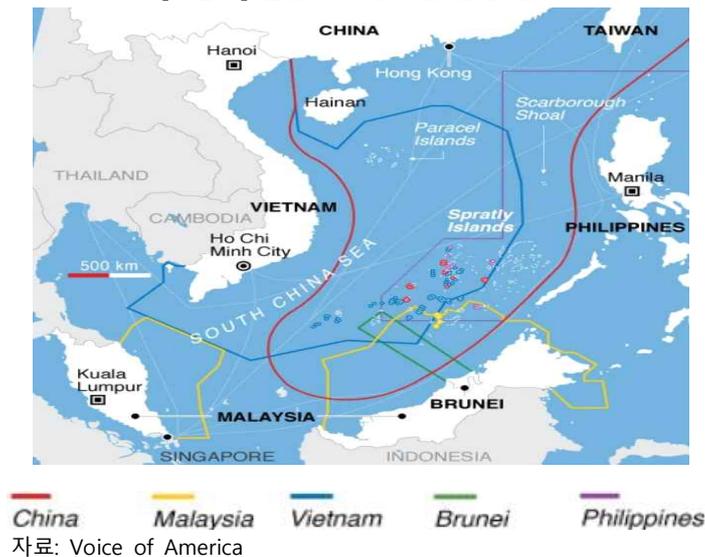
4) Moody's Investors Service, Credit Opinion: Government of Vietnam - Ba3 Positive, March 2021

## 국제관계

###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지속

-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도 중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 남중국해에서의 원유·천연가스 개발, 중국의 인공섬 조성 및 해군 배치, 미국의 적극 개입 선언 등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역대 국제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임.
- 2018년 4월 베트남-중국 외교장관 간에 남중국해 공동 개발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는 등 양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중시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7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 지질조사국 소속 선박이 중국 해안 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며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베트남 해안 경비정이 추격하여 수주일 동안 대치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은 국제적 이슈가 되는 민감한 사안이나, 베트남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 양국 정치 이념과 체제의 유사성, 외교관계 등을 감안시 군사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일본·인도 등과 안보 동맹 강화 추진

-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해양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접국 외에도 일본·인도 등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강국들과의 유대를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에 베트남이 지닌 중요성을 인지하고 베트남을 동 지역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로 대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부담이 크지 않으며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2021년 말 기준 총외채의 약 80%가 중장기 차관으로 구성되어 외채구조가 양호하며, D.S.R도 5.8%의 양호한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임.
- 한편, 2021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베트남의 채무 잔액은 단기 19억 달러, 중장기 91억 달러 등 총 110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은 중장기 240만 달러(0.02%)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 충분한 외환보유액 유지로 단기대외지급능력 양호

- 2021년 말 외환보유액은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전년 말(944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한 1,084억 달러로 추정됨. 이는 단기외채잔액의 3.4배 수준으로, 당분간 단기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21.06)	4등급 (2020.06)
Moody's	Ba3 (2021.09)	Ba3 (2021.03)
Fitch	BB (2022.03)	BB (2021.04)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환보유액 증가에 힘입어 '18년 이후 주요 신평사들의 베트남 신용등급 상승

- 2018년 5월 Fitch는 높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BB- → BB), 동년 8월 Moody's도 경제성장 지속과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B1 → Ba3).
- 2019년 6월 OECD는 정치 안정, 경제성장세 지속, 외채상환부담 감소 등을 근거로 베트남의 국가 위험도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지난 수년 간 7% 내외의 성장을 지속해온 베트남 경제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FDI 유입 감소, 관광업 침체, 내수 위축 등을 겪어 예년 대비 저조한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산업생산과 수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공산당 1당 체제로 사회·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응우옌 푸 쯩 공산당 서기장이 2021년 1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례적으로 세 번 연속으로 서기장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권력 집중이 우려됨.
- ASEAN 내 제조업 중심지로서 FDI 유치와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교란 영향에 따른 중국 생산기지 이전 수요에 대응하는 유력한 대체지로 평가됨.
- 지속적인 FDI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시현 등으로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여 외채상환능력 및 상환태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함